화물·건설 파업 … 광주·전남 기업·건설현장 피해 확산

기계 멈추고 공사 마비 … 산업계 '동맥경화'

삼성전자 광주공장 어제 휴업…기아차 운송률 40%

수완지구 등 아파트 건설 현장 이틀째 전면 중단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진 17일 광주·전남 전자·화학업계의 조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광주·전남 지역 각 건설현장에서는 건설 기계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공정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계 전반이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다.

또 이틀째 상경투쟁을 벌였던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800여명이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지역 사업장별로 파업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자동차업계=삼성 전자 광주공장은 이날 지난 1989년 공장 설립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5일째 계속되고 있는 물류대란으로 공장 내부 야적장이 컨테이너 300개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하룻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백색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역시 부품 공급이 중단돼 이날 오후부터 일부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대우측은 현재 가스레인지 생산 4개 라인 가운데 1개 라인을 멈춘 상태에서 부품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다른 제품 생산 라인의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제품 운송률은 40% 가량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1천500대(내수용 500대, 수출용 1천대)의 운송이 중단된 가운데 본사 차량 10대와 임대 차량 60대를 이용해 광산구 평동의 임시 적치장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산단=DNT, 질산 등 석유화학 중간재를 생산하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휴켐스는 이날 11개 단위공장 가운데 질산을 만드는 1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DNT를 만드는 3개 공장의 가동률도 50%로 낮췄다.

2개 단위공장 가운데 1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KCC는 앞으로 4일이 지나면 야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일모직 역시 일부 단위 공장의 가동률을 최대 50%까지 낮춰 조업하고 있다.

◇건설현장=건설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는 덤프트럭을 주축으로 한 건설장비의 운행중단으로 인해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서구 쌍촌동 등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의 토목공사가 이틀째 전면 중단됐다.

전남도 여수 율촌산단 조성 현장의 건설기계 가동률이 6%대에 그치는 등 파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율촌산단 토목공사에는 건설기계 120여대 가운데 7대만 투입되는 등 파업 참가자가 날로 늘고 있다.

또 도내 도로건설 현장 31곳과 하천 등 각종 공사현장도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들 현장은 비상근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9년만에 멈춘 삼성광주공장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공장 냉장고 라인이 생산을 중단한 채 멈춰서 있다. 이날 삼성광주공장은 1989년 공장 설립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건설기계노조 오늘 현장 파업

민노총 내달 2일 총파업키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가 2일간의 상경 파업투쟁을 끝내고 18일부터는 현장별 파업투쟁에 들어간다.

또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18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상경투쟁 이틀째인 1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 데 이어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노조는 권 차관과의 면담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과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등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되풀이했다. 또 건설기계사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다단계하도급 문제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표준계약서 활성화와 유류 직접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요구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유가급등에 따른 부담과 관련, 관급공사의 경우 경유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전체 공사의 6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만이다.

노조는 18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현장별 파업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상경투쟁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경우 투쟁동력이 약해져 사실상 파업이 끝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달 2일 하루동안 총파업을 실시한다. 총파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또 3~5일은 총괄 상경투쟁을 실시한다. 민노총 관계자는 17일 "내달 2일 하루동안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작업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3~5일은 총괄 상경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경투쟁은 산별 및 개별노조가 형편되는 대로 서울로 올라와 집회를 갖는 방식이다. 민노총은 이날 지방의 노조간부 등 4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경투쟁이 시작되는 3일에는 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임·단협 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 노조 등의 임·단협 파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주유대란도 오나

운송거부로 탱크로리 멈춰

주유소 기름공급 제때 안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주유소에 기름 공급이 안돼 주유 대란이 예상되는데다 기업들의 조업 중단 사태까지 잇따르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름을 운반하는 일부 지역의 탱크로리 차량마저 멈춰서면서 주유소에 기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에 17일까지 접수된 중소업체의 피해는 수출이 106개, 3천56만달러, 수입은 49개사, 944만달러다.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다 장마까지 겹치자 야적장에 무작정 제품을 방치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 등은 건설기계 노조 파업의 영향까지 받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대산유화단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주요 업체들의 재고량이 13만6천t을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차량도 운행을 중단하면서 서산 시내 각 주유소들이 기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 기름공급 중단은 여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주부터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시내 한 주유소 업주는 "아직은 재고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파업이 3-4일 정도 더 지속하면 기름이 없어 못 파는 주유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화물연대 협상 어떻게 돼 가나

정부 "노동권 인정 불가"… 조기 타결 난망

화물연대 파업 5일째를 맞은 17일 정부가 화물차 과잉 공급 해소, LNG화물차 전환시 연료비 보조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가 제시한 핵심현안에 대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극적인 협상타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 2만1천대 가량 공급 과잉 상태인 화물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연료비가 30~40% 저렴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다단계 거래구조, 지입제 개선 등 그동안 논의된 화물 운송시장 구조 개선도 지원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여전히 경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 인하, 표준요율제 선법제화, 노동3권 보장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제안에 대해 거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조기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17일 "어제 협상 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 제시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져 있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계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현재 광주에서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금호타이어 1곳 뿐이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협상 타결과는 상관 없이 중앙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파업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인 글로비스가 이날에야 본사 차원에서 협상의 뜻을 밝혔으며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아직 화물연대와 접촉조차 없는 상태다.

여수에서는 화물연대가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운송사와 화주 측과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반 화물차의 운송료는 30%, 컨테이너 차량은 45%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송사와 화주 측은 일반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각각 12%와 7~1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 소 문

(광주 기아 조합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광주시민 일동